

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1. 11. 2.
제공사 :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
과 장 : 윤 분 도
연구사 : 박 정 석
전 화 : 500-2417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있음(2P)

이 자료는 2011년 11월 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북태평양 연어 어획량 증가 추세

- 불법 유자망 연어어업근절을 위한 회원국간 공조노력 강화 -

〈 주 요 내 용 〉

- ◇ 북태평양 전체 연어어획량이 '09년도 이어 '10년도에도 100만톤으로 최고치에 이룸
 - 우리나라 어획량은 134톤('09)에서 146톤('10)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, 지속적으로 연어 방류사업을 증진하고 있음
- ◇ 북태평양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불법 연어어업을 방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회원국간 공조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

- 지난 10.23일부터 10.28일까지 캐나다 나나이모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(NPAFC) 제19차 연례회의에 우리나라, 일본, 미국, 러시아, 캐나다 5개국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.
- 동 위원회는 북태평양 북위 33도 이북 공해수역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불법 연어 어획활동을 감시하고, 회원국간 연어자원 증대를 위한 과학적 기술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다.

* 우리나라는 '03년 5월 연어의 모천국 지위 확보 및 방류연어에 대한 회유경로 파악 등 자원조사와 선진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가입

- 특히,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 유자망 어선을 감시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매년 감시선박, 항공기, 인공위성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조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고, 특히 '10년도부터는 격주간 전화회의를 통해 불법어업 관련정보를 회원국간 공유하고 있다.

- 우리나라의 경우 '10년도에 부산항에 입항한 불법 유자망 어선(캄보디아 국적) 및 불법연어 운반선(파나마 국적)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, 불법연어 약 28톤(약 1억8천만원 상당)을 압류 조치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.
-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FAO 항만국 조치 협정에 대비하고, 현재 국내 항만국 검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.

- 한편 동 위원회의 과학조사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, '09년도에 이어 '10년도 북태평양 전체 연어 어획량은 100만톤을 상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, 그 중 참연어, 곱사연어가 약 80%를 차지하였고, 우리나라의 경우 146톤(58천여마리, 약 10억원 상당)을 어획하였다.

○ 동 어획량은 '09년도 134톤(49천마리) 보다 조금 상회한 것으로, 우리나라는 매년 강원도 양양 남대천을 중심으로 강원도 및 경북 하천 등지에서 매년 연어 방류마리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.

* 우리나라 방류마리수: 5,835천마리('09), 17,194천마리('10), 20,900천마리('11)

○ 이에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사업단(강원도 양양 연어사업소)을 중심으로 강원도 삼척 내수면사업소, 경북 민물고기 연구센터 등지에서 매년 연어 방류마리수를 계속적으로 증가할 계획이다.

□ 동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(ENFO: Committee on Enforcement)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박정석 수산연구사가 향후 2년간 ENFO 의장직을 수행키로 결정되었으며, 차기 감시평가조정회의(EECM: Enforcement Evaluation and Coordination Meeting)와 더불어 감시활동 관련 워크숍을 '12년도 3월말경 제주도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. 또한, 북태평양 소하성어류위원회의 제20차 연례회의는 '12년 10월 경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○ 농림수산식품부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(NPAFC)의 정식 회원국으로서, 동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연어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북태평양의 핵심국가로서 북태평양 수산 논의 동향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.

<참고 1>

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(NPAFC) 개요

□ 설립근거: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 제8조 (1993년 2월 16일 발효)

□ 목적: 협약수역내 소하성 자원의 포획 금지 및 자원보존

□ 협약수역: 북태평양 북위 33도 이북 공해

□ 관리대상 어종: 7종

○ 연어: 6종 [Chum(연어), Coho(은연어), Pink(곱사), Sockeye(홍연어), Chinook(왕연어), Cherry(시마연어)]

○ 송어: 1종 [Steelhead(무지개송어)]

□ 설립/사무국: 1993. 2 / 캐나다 밴쿠버

□ 회원국: 우리나라, 일본, 미국, 러시아, 캐나다 5개국

※ 우리나라는 모천국 지위 확보 및 방류연어에 대한 최유경로 파악 등 자원조사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가입('03. 5월)

□ 기 능

○ 소하성 어족 및 생태적으로 연관된 어종의 보존조치 권고

○ 협약 위반활동에 대한 정보교환

○ 과학조사활동 권고

□ 보조기구

○ 재정행정위원회(Committee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)

○ 감시위원회(Committee on Enforcement)

※ 회원국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협약수역의 연어불법조업활동을 감시·감독

○ 과학조사통계위원회(Committee on Scientific Research and Statistics)

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(NPAFC) 협약수역

(북태평양 북위 33도 이북 공해수역)

